

시인의 정체성 - 「몽블랑」과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 연구

이 일 재
(전북대학교)

Lee, Il Jae. "The Poet's Identity - A Study of "Mont Blanc" and "Hymn to Intellectual Beaut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3 (2018): 133-155. Shelley identifies the poet is both "the creature of age" and "the creator of age." It is true that the poet cannot but be affected by the ideology of his/her society, because he/she lives in the society. Meanwhile, the poet finds the future in the present. The thing which distinguishes the poet from common people is 'imagination.' 'Imagination' is the active capability of the mind that understands all the entities which can't be identified with human being's sensory perception. It is also the sympathetic power that relates to morality. So it serves as the power to love others. Shelley found the way that raised objection against the leading cognitive structure at that time from David Hume's causal theory. By adding his own theory of imagination into it, he forms his identity as the poet who creates his own age in "Mont Blanc" and "Hymn to Intellectual Beauty."

Key Words: poet, the creator of age, the causal theory, imagination, love

I. 서론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인으로 하여금 그가 속한 사회와 시인 자신의 관계 형성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았다. 낭만주의 1세대들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혁을 지켜보면서 인간본성에 대해 희망을 노래했다면, 셸리를 포함한 낭만주의 2세대들은 그러한

혁명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인간본성에 대해 좌절을 느꼈고 그로 인한 허무를 경험했다. 혁명 주체 세력들의 변절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는 이기적인 욕망의 굴레에 갇힌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2세대 중 에서 셸리는 누구보다도 그러한 좌절과 그로 인한 고통에 시달렸는데, 이러한 면은 그의 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초기 시 「알래스터 또는 고독의 정령」(“Alastor; or, The Spirit of Solitude”)에서는 자기에 자꾸 갇히려는 그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고, “워즈워스에게”(“To Wordsworth”)에서는 정치적인 면에서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선배 시인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또한 「줄리앙과 마달로: 하나의 대화」(“Julian and Maddalo; A Conversation”)에서는 사회의 변혁과 인간 본성의 변화에 대한 이상적인 시각을 점검한다. 셸리 시 중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미완의 마지막 시 「삶의 개선 행렬」(“The Triumph of Life”)에서도 그러한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시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의 일환이고, 사회와의 관계 맺기를 위한 노력에 다름 아니다. 그는 시인을 “시대가 만들어낸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A Defence of Poetry” Vol. VII 131)¹.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절과 허무주의가 팽배한 당시를 “있는 그대로 열심히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좌절과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A Defence of Poetry” Vol. VII 134). 이런 점에서 셸리는 정직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셸리에게 시인은 또한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다(“A Defence of Poetry” Vol. VII 131). “현재를 있는 그대로 열심히 바라보”지만, 동시에,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재의 것들이 따라야만 할 법칙을 발견하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A Defence of Poetry” Vol. VII 134).

시인을 일반사람과 구별시켜주는 것은 바로 ‘상상력’이다. 셸리에게 ‘상상력’은 감각지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실체를 파악해내는 능동적인 정신 능력이며, 또한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공감시키는 힘(sympathetic power)이다. 그것은 타

¹ 셸리의 작품을 인용할 때, 산문은 제목과 권수, 페이지 번호를 인용문 뒤에 밝히고, 시는 제목과 행만 밝히겠다. 그리고 인용문에 표기할 시는 약호를 사용한다. 「몽블랑」의 경우에는 M,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는 H로 밝힌다.

인을 사랑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셸리는 「몽블랑」(“Mont Blanc”)과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Hymn to Intellectual Beauty”)에서 ‘상상력’을 처음으로 언급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두 작품들은 셸리 시들 중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이 작품들이 쓰여진 1816년 이전에 셸리는 흄(David Hume)의 경험적 회의주의에 많이 심취해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인과론을 거부하는 흄의 입장에서부터 당시의 주도적인 인식구조에 회의를 제기하는 방법론을 찾아내었다. 여기에 그의 상상력이론을 첨가해서 시인을 “시대가 만들어낸 사람”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상상력’으로 인해, 그는 그 자신을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구분시켰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시인이라는 자부심을 얻었다. 이제 그는 시인의 정체성을 찾아 방황하던 안쓰러운 「알래스터 또는 고독의 정령」에서 벗어나서 시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셸리는 「몽블랑」과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에서는 다른 작품들에서와 달리, 복잡한 서술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 자신이 화자로 등장하여 세상에서 시인으로서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해 숙고한다.

본 논문은 「몽블랑」과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 두 작품을 분석하면서 셸리의 인식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셸리가 흄의 회의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상상력을 발견하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해볼 것이며, 그러한 과정은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II. 「몽블랑」

셸리는 「몽블랑」에서 세상과 자아와의 관계를 탐색한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은 자아와 타자와의 만남, 즉 관계라는 그물망 속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탐색은 자연과의 대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몽블랑」은 추상적 이미지를 지닌 정신의 세계로 시작한다.

사물들의 영속하는 우주가
 정신을 통해 흘러가고 그것의 빠른 파도를 굴린다.
 어둡기도 하고 -- 빛나기도 하고 -- 어둠을 반사하기도 하며 --
 광휘를 보태기도 하며, 그곳에선 비밀의 샘으로부터
 인간 사상의 근원이 물에 대한 그것의 찬사를 가져온다 --
 자신의 소리의 반박에 되지 않는 소리로.
 외로운 산들 속의 거친 숲에서
 가냘픈 개울물이 간혹 낼 수 있는 그러한 소리로.
 거기서 개울 주변에서 폭포수는 영원히 도약하고
 거기서 수림과 바람들은 서로 다투고, 거대한 강은
 암석위로 끊임없이 부딪치고 포효한다.

The everlasting universe of things
 Flows through the mind, and rolls its rapid waves,
 Now dark -- now glittering -- now reflecting gloom --
 Now lending splendour, where from secret springs
 The source of human thought its tribute brings
 Of waters -- with a sound but half its own,
 Such as a feeble brook will oft assume
 In the wild woods among the mountains lone,
 Where waterfalls around it leap for ever,
 Where woods and winds contend, and a vast river
 Over its rocks ceaselessly bursts and raves. (M 1-11)

그런데, 추상적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은 셸리 시를 비난하는 평자들이 대표적
 으로 비판하는 부분이다. 리비스(F. R. Leavis)는 이 시에서 “은유적이고 사실적
 인 것, 실제적이고 상상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이 분류할 수 없을 정도
 로 심하게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불평한다(207). 그에 의하면 이러한 혼동은 셸리가 실제의 것을 파악하
 지 못하고 그 자신의 사고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야
 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비스가 지적하는 “혼동”은 “셸리의 열망의 표출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O'Neill 43). 그는 파악하기 힘든 관계를 깨닫기 위해

서, 경험적인 현상을 제시하는 인식의 모델을 설정하고 있고, 그러한 모델을 토대로 세상과 정신의 질서를 설명할 이미지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은 어두운 저장소 또는 동굴이다. 강이 계곡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사물들의 영속하는 우주”는 “정신”을 통해 흘러간다. “정신”의 어두움을 반영하며 “정신”을 통해 형체를 얻는다. 한편, 사물은 결코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인간간의 정신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는 이러한 태도는 셸리를 관념주의 혹은 주관주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셸리를 주관주의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대표적인 평자는 플로스(C. E. Pulos)이다. 그는 셸리가 느낌이나 개연성 같은 불확실한 토대위에서 리얼리티의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에, 현상의 독립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54). 그런데 이 부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물들의 영속하는 우주”는 또한 그 자체로 밝고 어둡고 하는 등의 양태를 지닌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물의 속성을 주관하는 “정신”은 “비밀의 샘”이고 어둡고 모호한 장소이다. 1 연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신과 사물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계곡은 시인의 사고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한 사고의 대상이기도 하다. 즉 정신은 대상과 다르고, 대상은 결코 완전하게 정신 속으로 끌어당겨질 수 없다. 따라서 셸리는 주체가 대상을 구성한다는 주관주의의 입장과 달리, 객관적 사물이 존재하되, 그것은 우리의 인식에 확실하게 포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있다. 셸리는 외부의 사물이 정신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거나 또는 그것은 정신이 인식하는 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입장은 경험론적 회의주의, 특히 흄(David Hume)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흄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각들의 인식력들이 그것들을 닮은 외부대상들에 의해서 산출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의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을까? 확실하게 경험에 의해서이다; 본성과 같은 모든 다른 문제들처럼. 그러나 여기에서 경험은 전적으로 침묵하고 침묵해야만 한다. 정신은 지각력들을 제외하고 그것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결코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대상들과 그것들의 결합에 대한 어떤 경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결합에 대한 가정은 추론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도 없다.

It is a question of fact, whether the perceptions of the senses be produced by external objects, resembling them: how shall this question be determined? By experience surely; as all other questions of a like nature. But here experience is, and must be entirely silent. The mind has never anything present to it but the perceptions, and cannot possibly reach any experience of their connection with objects. The supposition of such a connection is, therefore, without any foundation in reasoning. (153)

흠에게는 인간의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경험’ 특히, 경험을 통해 얻은 ‘인상’이다. 그런데 인상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인간들은 그것을 오직 “집합들”과 “더미들”로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인간들의 인식들에 대해서) 감히 확신할 수 있다, 그것들은 오직 다른 인식들의 더미 혹은 집합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서로의 뒤를 잇고 지각력의 흐름과 운동 속에 있다는 것을.

I may venture to affirm(perceptions of human beings), that they are nothing but a bundle or collection of different perceptions, which succeed each other with an inconceivable rapidity, and are in a perceptual flux and movement. (252)

경험을 통해 얻은 ‘인상’이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지만, 그러한 ‘인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외부대상을 파악하려고 할 때 대상들과 그것들의 결합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결론도 내릴 수 없고, 인상들의 흐름을 묶는 원인과 결과의 이성적인 결합이 없다는 것이 흠의 입장이다. 흠에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오직 임의적일뿐이다.

셀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흠의 이러한 인식론이다. 1연은 경험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인식의 모델, 즉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셀리는 일반적인 가정을 통해서 정신과 자연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근원, 즉 ‘원인’을 알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구현하고 있다. 『몽블랑』에서 ‘원인’은 “거대한 힘”으로 제시되고 있다. 화자는 자연의 배후에 아르브 강

을 닮은 “거대한 힘”의 존재를 느낀다².

이렇게 그대, 아르브의 계곡이여 -- 어둡고 깊은 계곡이여 --
 그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계곡.
 그대의 소나무들, 울퉁불퉁한 바위들, 동굴들 위로
 빠른 구름 그림자와 햇살들이 지나간다: 경이로운 장면,
 그곳에 거대한 힘이 아르브와 닮은 모습으로 내려온다.
 그의 비밀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얼음의 틈으로부터,
 폭풍우 사이로 터지는 번갯불처럼 이 어두운 산들을 통해
 터져 나오면서 -- 그대는 누워있다.

Thus thou, Ravine of Arve -- dark, deep Ravine --
 Thou many-coloured, many-voiced vale,
 Over whose pines, and crags, and caverns sail
 Fast cloud-shadows and sunbeams: awful scene,
 Where Power in likeness of the Arve comes down
 From the ice-gulfs that gird his secret throne,
 Bursting through these dark mountains like the flame
 Of lightning through the tempest; -- thou dost lie. (M 12-9)

골짜기는 소나무들과 바위들, 동굴 등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목소리”를 가졌다. 그러나 그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들로서, 그것들 뒤에 존재하면서 변하지 않는 “거대한 힘”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화자는 그 “거대한 힘”의 존재가 세상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외감을 느끼지만, 그것의 정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며 인간의 인식의 범위를 벗어난 먼 곳에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힘은 멀고, 고요하고, 접근할 수 없는
 그것의 평은 속에서 떨어져 산다;
 이 대지의 드러낸 얼굴,

² 이 시에서 “Power”는 세상의 배후에 있는 힘으로서, 세상의 근원으로 가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힘”으로 번역한다.

내가 응시하는, 바로 이들 원시의 산들이
주의 깊은 마음을 가르친다.

Power dwells apart in its tranquillity
Remote, serene, and inaccessible:
And this, the naked countenance of earth,
On which I gaze, even these primaevial mountains
Teach the adverting mind. (M 96-100)

“거대한 힘”으로 표상되는 세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화자의 고백으로 인해 이 시는 셸리의 회의주의를 대변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³.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화자가 ‘원시의 산들’, 즉 높고 장엄한 몽블랑으로부터 “주의 깊은 마음”을 배운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셸리의 인식론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흠의 견해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셸리는 흠의 ‘인과론’을 바탕으로 ‘원인’을 “두 사고들이 서로 관련되어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에 관한 인간 정신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일뿐”이라고 규정한다(“On Life” VII 197). 원인은 우리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들 사이의 관계를 명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도 셸리에 의하면 인간의 “습관적인 확신”에 의해 결정된다(“On Polytheism” VII 151)⁴. 따라서 그 동안 존재의 근원, 사물의 근원도 인간이 “습

³ 와서만(Earl Wasserman)은 이 시에서 셸리가 계속해서 “회의적인 수사”를 사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셸리의 이상주의를 회의주의를 토대로 한 특별한 형태의 이상주의, 즉 “회의적 이상주의”로 평가한다(35). 와서만은 셸리에게서 하나의 관점을 잃어내는 독단을 지양하고 갈등구조에 주목하면서, 그 동안 셸리 시를 그의 “혼란한 정신”의 결과물로 파악하던 리비스와 엘리엇(T. S. Eliot) 등의 시각을 극복하는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셸리의 시는 모순적인 요소들을 시적으로, 지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셸리의 회의적인 인식에 주목한 나머지, 셸리의 모습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남겨놓은 것 또한 사실이다.

⁴ 우리가 원인에 대하여 아는 모든 것은 한 사건,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감각이 이러한 감각들이 이후에 유사하게 연결될 것이라는 경험으로부터 나온 확신을 동반하고 다른 감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적인 확신은 우리가 하나의 사물이 다른 것의 원인이라고, 혹은 그것이 어떤 결과들을 산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기대는 것이다.

All we know of cause is that one event, or to speak more correctly, one sensation follows another attended with a conversation derived from experience that these sensation

관적인 확신"에 의해 규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성적인 추론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임의적일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원인'에 대한 그 자신의 기존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원인'과 그것을 파악해내는 인간의 사고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읽어내고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감각들을 재배열하는 인간 정신의 능동성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셸리에게 있어서 외재하는 사물의 의미를 읽어내게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재배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셸리에 의하면 '상상력'은 천지만물의 형태를 "만드는 것, 즉 종합의 원리"이다("A Defence of Poetry" Vol. VII 34)⁵. 화자는 그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거대한 힘"을 파악해내게 되었다.

「몽블랑」에서 "거대한 힘"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궁극적인 '원인'이지만, 기독교의 신과 다르다. 그것은 인간에게 강압적으로 교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will hereafter be similarly connected. This habitual conviction is that to which we appeal when we say that one thing is the cause of another, or has power of producing certain effects. ("On Polytheism" VII 151)

⁵ 이른바 이성, 상상력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정신활동의 한 고찰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여 생겨난 상념이건 간에, 전자는 어떤 상념이 다른 상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고찰하는 정신, 그리고 후자는 독자적인 빛으로 그들 상념을 색칠하도록 그것들에 작용을 하고, 마치 원소로 구성되듯이, 그것들로부터 그들 내부에 그것자체 완전이라고 하는 원리가 들어있는 다른 상념을 만들어내는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상력은 만드는 것, 즉 종합의 원리이고, 천지만물, 모든 것 자체에 공통되는 형태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성은 썬하는 것, 즉 분석의 원리이고, 그 작용은 사물의 관계를 단지 관계로서만 보고, 상념을 완전한 통일체로서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 결과로 인도하는 수학적 표기로서 생각한다.

According to one mode of regarding those two classes of mental action, which are called reason and imagination, the former may be considered as mind contemplating the relations borne by one thought to another, however produced; and the latter, as mind acting upon those thoughts so as to colour them with its own light, and composing from them, as from elements, other thoughts, each containing within itself the principle of its own integrity. The one is the principle of synthesis, and has for its objects those forms which are common to universal nature and existence itself; the other is the principle of analysis, and its action regards the relations of things, simply as relations; considering thoughts, not in their integral unity, but as the algebraical representations which conduct to certain general results. ("Defence of Poetry" Vol. VII 134)

그것은 도덕과도 무관한 존재로서, 선과 악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직 인간과 좋은 관계 혹은 나쁜 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인간이 “거대한 힘”에게서 선한 뜻을 읽어서 선을 행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좋은 존재이다. 한편,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악한 뜻을 읽어서 악을 행하면 그것은 악한 존재가 된다. 즉 “거대한 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이다. 이제 화자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거대한 힘”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에 다가간다. 그는 사물에 자신의 의식을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로 사물의 세계를 재배열하고, 창조한다.

황야는 장엄한 의심 혹은 부드럽고,
 엄숙하고, 고요한 신념을 가르치는
 신비로운 언어를 가진다, 그러한 신념으로만,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정도의.
 위대한 산이여, 그대는 사기와 비애의 대법전들을
 폐지할 목소리를 가졌도다;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이해되지는 않고,
 현명하고, 위대하고, 선한 사람이
 해석하거나 혹은 느껴지게 만들거나 혹은 깊이 느끼는.

The wilderness has a mysterious tongue
 Which teaches awful doubt, or faith so mild,
 So solemn, so serene, that man may be,
 But for such faith, with nature reconciled;
 Thou hast a voice, great Mountain, to repeal
 Large codes of fraud and woe; not understood
 By all, but which the wise, and great, and good
 Interpret, or make felt, or deeply feel. (M 76-83)

화자는 말이 없이 고요한 “거대한 힘”으로부터 “사기와 비애의 대법전들을 폐지할 목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화자의 신념이 만들어낸 목소리이다. 그가 “사기와 비애의 대법전들을 폐지할”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 때, “거대한 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셸리가 ‘인과관계’에 그토록 매달린 이유가 분명해

진다. 그는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의 본질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착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인과관계’가 당시의 지배구조에 대한 인습적인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종교·정치지도자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이유를 지배자들과 일반대중의 인식구조에서 찾는다. 즉 지배자들은 그들의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하여 그들의 것만이 옳다고 믿는 독단에 사로잡혀있고, 일반 대중들은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인식을 결여한 채,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셸리에게 있어서 개혁을 이루는데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습적인 사고체계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엄격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흠의 견해를 사용하여, 신을 인과의 원칙으로 정의하는 당시의 신에 대한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당시의 제도화된 종교의 본질에,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권위의 본질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로써 그는 제도적인 종교의 폐지, 프랑스 혁명, 정치적인 개혁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에 참여한다. 셸리는 흠의 회의주의를 바로 이렇게 당시의 인습적인 사고체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회의하는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헉우드(Terrence Allen Hoagwood)의 평가처럼, “셸리의 회의주의는 정치적인 자유와 윤리적인 행위의 가장 구체적인 종류들과 연관”되는 것이다(34). 그는 흠의 회의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몽블랑」에서 상상적인 힘에 대한 자부심을 얻었다. 이로써 그는 “시대를 만드는 존재”로서의 시인으로 태어나고 있다.

그런데 “거대한 힘”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닌 “현명하고, 위대”한 사람, 바로 시인이다. 셸리는 “시인과 사람은 다른 두 본성”이라고 구별한다(“Letters” Vol. X 270). 시인은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산인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며,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해석해 내는 사람, 즉 예언자이다. 그래서 시인은 “거대한 힘”의 “사기와 비애의 대법전을 폐지할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깊이 느끼며 해석해낸다. 시인이 아니면 일반 대중들은 “거대한 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시인은 “거대한 힘”의 의미를 대중들에게 전달하여 사기와 비애가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입법자”이다(“A

Defence of Poetry” Vol. VII 140).

한편, 셸리에 의하면 시인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입법자”인 동시에, “어둠 속에 앉아서 부드러운 소리로 자신의 고독을 북돋우기 위해 노래 부르는 나이팅게일”이다(“A Defence of Poetry” Vol. VII 116). 시인은 모순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입법자”의 의무를 지니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수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럴 필요도 있다. 『몽블랑』의 화자는 이제 “자신의 분리된 환상” 속에서 머문다.

아찔아찔한 계곡이여! 그대를 응시하고 있으면
 숭고하고 기묘한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나 자신의 분리된 환상을,
 나 자신의 나의 인간적인 정신을 명상하는 것 같다.
 나의 인간적인 정신은 수동적으로
 빠르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주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주위 사물들의 밝은 우주와
 끊임없이 교류를 계속하면서.
 배회하는 날개들이 그대의 어둠 위를 떠돌기도 하고,
 그것이나 그대가 불청객이 아닌 곳에서
 쉬기도 하는 길들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
 시라는 마녀의 고요한 동굴 속에서,
 지나치는 그림자들 중에서
 그대의 어떤 음영, 어떤 환영, 어떤 희미한 이미지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유령들을 찾으면서.
 길들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이 도망쳐 나온 가슴이
 다시 그것들을 불러들일 때까지, 거기에 그대는 존재하는구나!

Dizzy Ravine! and when I gaze on thee
 I seem as in a trance sublime and strange
 To muse on my own separate fantasy,
 My own, my human mind, which passively
 Now renders and receives fast influencings,
 Holding an unremitting interchange

With the clear universe of things around;
 One legion of wild thoughts, whose wandering wings
 Now float above thy darkness, and now rest
 Where that or thou are no unbidden guest,
 In the still cave of the witch Poesy,
 Seeking among the shadows that pass by
 Ghosts of all things that are, some shade of thee,
 Some phantom, some faint image; till the breast
 From which they fled recalls them, thou are there! (M 34-48)

그는 “나 자신의 분리된 환상”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시의 고요한 동굴을 방문한다. 그러나 시인은 자연과 분리된 그 만의 환상 속에서도 수동적으로나마 주위 사물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의 환상 속에서도 43행의 “그것” 또는 “그대”인 아르브는 불청객이 아니다. 시인은 세상과 단절된 그 만의 환상을 위해서 시의 동굴을 방문한 것이 아니다. 그가 시의 동굴을 방문한 이유는 자연에서 거칠게 달리는 아르브와 달리 시의 장소는 고요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정신”으로 지나가는 그림자들 사이에서 모든 사물들의 그림자를 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셸리는 감각지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림자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그림자는 비록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플라톤적 관념인 사물의 본질과 떨어진 허상이 아닌, 사물의 본체에 접근하는 매개물, 즉 “시적인 수단들”로 작용한다(O'Neill 44). 시인은 시의 동굴의 정적 속에서, 즉 자신의 정신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마침내 파악하기 힘든 “거대한 힘”인 48행의 “그대”를 발견한다. 이러한 경험 후에 시인은 “사기와 비애의 대법전”을 폐지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시인이 찾는 “유령”은 리얼리티에 대한 적합한 대체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시인은 리얼리티를 찾아 그 가장적인 동굴을 떠나야 한다고 지적하는 홀(Jean Hall)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67). “시의 고요한 동굴”은 가상적인 동굴이 아니라, 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상상력이 피어나는 공간이다(Reiman 90). 셸리에게 ‘시’는 시인의 정신과 사물의 근원에 대한 비전을 형상화시키는 공간이다. 시인이 상상하지 않는다면, 시인이 “거대한 힘”의 목소리를 들

을 수 없다면, 자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몽블랑」은 결론짓는다.

과연 인간 정신이 상상하는 것들에
침묵과 고독이 공허에 불과하다면
그대와, 대지와, 별들과 바다가 다 무얼까?

And what were thou, and earth, and stars, and sea,
If to the human mind's imaginings
Silence and solitude were vacancy? (M 142-144)

「몽블랑」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지만, 그것들에서 해결책을 찾는 않는다. 블랭크(Kim Blank)의 평가처럼, 셸리는 이 시에서 “변형적인 허구”(54)를 구현함으로써,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III.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에서도 셸리는 여전히 ‘인과관계’에 몰두하면서 인간 정신의 능동성을 탐구한다. 그런데 그는 이 시에서 「몽블랑」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와 시인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이 시에서 인간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경외적인 힘” 또는 “미의 정령”으로 불리는 존재이다. 이것은 감각적 경험에 의한 접근을 초월한 “초감각적인 미”로서, 「몽블랑」의 “거대한 힘”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⁶.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는 그러한 존재의 추구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몽블랑」과 자매시로 평가된다. “거대한 힘”처럼 그것은 보이지 않으며 자연 현상의 실체 위를 지나가는 그림자로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⁶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으로 설정되고 있는 존재가 감각적 경험으로 접근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intellectual”을 비감각적인, 초감각적인 의미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로 해석한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무서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우리 사이를 떠다닌다—꽃에서 꽃으로
 소리 없이 오가는 여름 바람처럼 변덕스러운 날개를 가지고
 이 다양한 세상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어느 소나무 우거진 산 뒤로 떠올라 힘껏 내뿜는 달빛처럼,
 그것은 변덕스러운 광휘로
 모든 인간의 마음과 얼굴을 찾아온다.
 저녁의 색조와 선율의 조화처럼,
 널리 퍼져있는 별빛속의 구름처럼,
 흘러간 음악에 대한 추억처럼,
 우아하기에 소중한나
 신비하기에 더욱 소중한 그 어떤 것처럼.

The awful shadow of some unseen Power
 Floats though unseen amongst us, —visiting
 This various world with as inconstant wing
 As summer winds that creep from flower to flower, —
 Like moonbeams that behind some piny mountain shower,
 It visits with inconstant glance
 Each human heart and countenance;
 Like hues and harmonies of evening, —
 Like clouds in starlight widely spread, —
 Like memory of music fled, —
 Like aught that for its grace may be
 Dear, and yet dearer for its mystery. (H 1-12)

1연에서 화자는 그것을 볼 수는 없어도 이 세상을 관장하는 어떤 무서운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화자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저녁의 색조와 선율의 조화, 별빛 속의 구름, 흘러간 음악에 대한 추억처럼 우아해서 소중한다. 그러나 화자에게 그것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신비하기 때문이다. 별이 빛나는 밤에 흘러간 구름의 존재는 별들의 빛 때문에 전면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고, 흘러간 음악에 대한 추억도 예전 음악의 존재를 일깨운다. 화자는 이러한 연관성을 인식함으로써 현상적인 것들 사이를 그림자처럼 떠다니는 알 수 없는 힘

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것이 이 세상과 신비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화자는 그것의 속성을 탐구하고 싶어지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고 싶어진다. 그런데 화자는 처음부터 그것의 속성이 가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날개”와 “변덕스러운 광휘”로 인간 세상을 찾아온다. 화자의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현재를 조화가 깨진 상황으로 판단한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는 “초감각적인 미”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을 해석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고 싶어 하는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열망은 다음 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화자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미의 정령”으로 부른다.

미의 정령이여, 그대가 밝혀주는
 인간의 사상이나 형태를 그대 자신의 색조로
 신성하게 만들더니—그대는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대는 어찌하여 사라져버려 우리를
 어슴푸레한 눈물의 골짜기에서 공허하고 황량하게 만드는가?
 어찌하여 태양빛이 저 산 계곡의 강물 위에다
 영원히 무지개를 짜지 않는지,
 어찌하여 한 번 보였던 것이 없어지고 시들어버리는지,
 어찌하여 두려움, 꿈, 죽음, 그리고 태어남이
 이 햇빛과 같이 밝은 지상에 그러한 어두움을 드리우는지,
 어찌하여 인간이 사랑과 미움, 실망과 희망의
 기회를 동시에 가지는지—물어보아라.

Spirit of Beauty, that dost consecrate
 With thine own hues all thou dost shine upon
 Of human thought or form,——where art thou gone?
 Why dost thou pass away and leave our state,
 This dim vast vale of tears, vacant and desolate?
 Ask why the sunlight not forever
 Weaves rainbows o'er yon mountain river,

Why aught should fail and fade that once is shewn,
 Why fear and dreams and death and birth
 Cast on the daylight of this earth
 Such gloom—Why man has such a scope
 For love and hate, despondency and hope? (H 13-24)

알 수 없는 힘의 존재는 화자에게 우아해서라기보다 신비로워서 더 소중하면서도, 화자는 그것을 “미의 정령”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화자에게 시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화자는 그것을 통해서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현상적인 미나 우아함보다는 숭고함을 의미한다. 당시 인간성의 조화가 깨진 긴박한 상황에서 시인은 표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찾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한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은 숭고한 여정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셸리에게 아름다움은 숭고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에서 셸리가 “아름다운 것”과 “숭고한 것”의 구별을 없애려고 한다는 퍼버(Michael Ferber)의 평가는 적절할 수도 있겠다(53). “미의 정령”은 화자에게 공동선을 향한 숭고함을 불러 일으켜준다. 공동선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셸리가 그 자신의 시대에 자신에게 부여한 시인의 역할이다.

“변덕스러운 날개”와 “변덕스러운 광휘”로 인간 세상을 찾아오곤 하던 존재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미의 정령”은 이 세상을 관장하는 힘이고, 신성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을 그것의 속성대로 신성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라지고, 그 결과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슬퍼하며 희망이 없는 황량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고, 더 나은 상태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지만, 태양빛은 희망을 약속하는 무지개를 영원히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햇별이 내리쬐는 밝은 대낮에 품어보는 희망 속에도 어두움이 드리워져있다. 그 희망이 깨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은 왜 실망과 희망,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경험하는지 화자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화자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난날 종교에 매달리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종교는 그에게 “사악한 이름”(H 53)이 되었다. 종교에 대한 셸리의 견해는 「기독교에 대한 에세이」(“Essay on

Christian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기독교와 예수를 구분한다. 예수는 약한 것들이 불완전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자비로워짐에 따라 계급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신념은 기독교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들은 예수의 사랑을 왜곡하였고, 사랑을 전파한다는 명목아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환으로 종교전쟁을 일삼았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거대한 제도화된 권력집단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후의 행복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도덕의식을 마비시켰던 것이다(Vol. VI 251). 종교에 실망한 그는 열정을 불태우며 학문에 빠져들었지만, 학문도 “환상의 은신처”(H 65)에 불과했다. 그것도 결국, 인간은 “의심, 우연, 무상함”에 갇힌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H 31). 그러면 그가 힘겨운 모색을 통해서 도달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정오가 지나면, 날은 좀 더 엄숙해지고
 고요해지네-가을에는
 조화가 있고, 그 하늘에는 광채가 있네.
 마치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듯이, 그리고 존재할 수 없었듯이
 여름 내내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조화와 광채가!
 그러니 내 소극적인 젊은 시절에 자연의 진리인 양
 나에게 내려온 그대의 능력이여, 그 고요함을 장래의 나의 삶에 공급해주오-
 그대를 경배하고
 그대를 포용하는 모든 형태를 숭배하는 이에게.
 아름다운 정령이여, 그대 마술에 묶여
 자신을 무시위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게 된 이에게 공급해주오.

The day becomes more solemn and serene
 When noon is past—there is a harmony
 In autumn, and a luster in its sky,
 Which through the summer is not heard or seen,
 As if it could not be, as if it had not been!
 Thus let thy power, which like the truth
 Of nature on my passive youth

Descended, to my onward life supply
 Its calm—to one who worships thee,
 And every form containing thee,
 Whom, Spirit fair, thy spells did bind
 To fear himself, and love all human kind. (H, 73-84)

화자는 이제 모든 인류를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그 자신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미의 정령”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날 화자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가 “삶의 운명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겨있을 때”, “미의 정령”의 그림자가 그를 찾아왔었다(H 59-6). 그러나 그때는 그가 인간의 상황에 대해 좌절하던 시기였고, 또한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낄 때였다. 그러한 좌절과 무력감은 그가 “의심, 우연, 무상함”이 인간의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거부한데서 비롯되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그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화자가 타인을 사랑할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자신을 경외하게 되었고 인류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솔직하게 인간 실존의 조건과 “미의 정령”의 본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미의 정령”은 분명히 그의 “사고에 자양분이 되는” 존재(H 44)이다. 인간은 절대적인 신념을 소유할 수 없는 의심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고, 무상함에 시달린다. 이것이 “미의 정령”이 인간 곁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위엄을 심어주면 인간은 영원히 전능할 것”이다(H 40-41).

한편 화자에게 “미의 정령”은 알 수도 없고 두렵기까지 한 존재이며(H 39), 언제나 그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도 않는다. “변덕스러운 날개”와 “변덕스러운 광휘”로 찾아오고, 아예 떠나버리기도 한다. 화자가 “미의 정령”이 항상 그 곁에 머물러서 그의 사고에 자양분을 부여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의 사고의 자양분이 되어주는 ‘원인’이고, 그것에 따라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그에게 도출된다는 전통적인 ‘인과관계’의 인습을 따랐다면 말이다. 이제, 화자는 인간 실존의 조건을 고통스럽지만 성숙하게 인정하면서 변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는 “미의 정령”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미의 정령”은 「몽블랑」의 “거대한 힘”처럼 말이 없고 고요하다. 그것으로부터 긍정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은 그 자신의 몫이다. 여름날에는 푸르른 희망만을 찾아 들떠있었고, 그러다 그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 속에 갇혀버렸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을날의 조화 속에 있다. 삶은 희망과 절망이 번갈아 나타나고, 인간은 영원히 살수 없는 존재지만, 유한한 삶에서도 영원에 대한 가능성을 꿈꿀 수 있다는 성숙한 희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고민하고 방황했던 지난 여름동안 찾을 수 없었던 사고의 결실을 맺는다. 의식의 변화를 이룬 그는 “미의 정령”으로부터 인류를 사랑하는 법을 듣게 된다(H 42). 이것은 「몽블랑」의 화자처럼, 그가 그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미의 정령”의 목소리를 해석해낸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상상력’이다. 셸리가 「몽블랑」에서 “사기와 비애의 대법전을 폐지할 목소리”를 들었다면,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에서는 「몽블랑」으로부터 들었던 목소리를 실천할 결정적인 수단을 발견한다. 그것은 ‘사랑’이다. 화자는 그의 ‘상상력’으로 “미의 정령”으로부터 “공감을 전달” 받았다(H 42).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에서 ‘상상력’은 이렇게 “공감시키는 힘”(sympathetic power)으로 확장되면서 도덕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상상력’은 인간의 의지를 ‘사랑’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자아의 좁은 벽을 넘어 타인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힘인 것이다. 셸리에게 ‘사랑’은 사랑하는 연인을 이상화하는 감상적이고 제한된 의미를 벗어나서 “인간과 인간을 결합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결합”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된다(“On Love” Vol. VI 201). ‘사랑’은 보잘 것 없는 미물도 신과 같은 존재로 승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셸리는 사회가 도덕적인 감수성으로 인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종교도 과학도 아닌 바로 시이다. 셸리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상태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에 달려있고 그러한 총체적인 비전은 ‘상상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시는 그러한 ‘상상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언제나 새로운 기쁨의 상념들로 상상력을 채움으로써 상상력의 경계를 확대한다. 이와 같은 상념들은 모든 다른 상념들을 그것들의 성질로 끌어당겨 동화시키

는 힘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간격들과 빈틈들을 만들면, 그 간격들과 빈틈들의 공간은 언제나 신선한 양식을 갈망한다. 운동이 팔과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는 인간의 도덕성의 기관인 그 능력을 튼튼하게 한다.

Poetry enlarges the circumference of the imagination by replenishing it with thoughts of ever new delight, which have the power of attracting and assimilating to their nature all other thoughts, and which form new intervals and interstices whose void for ever craves fresh food. Poetry strengthens that faculty which is the organ of the moral nature of man, in the same manner as exercise strengthens a limb. (Vol. VII 130)

셸리는 객관적인 지식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상상하고 창조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여긴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인간이 창조하고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의식의 변화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전에 ‘상상력’ 속에서 변화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시인의 임무는 시를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현존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총체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을 개발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셸리의 ‘상상력’은 이 세상 너머의 초월적인 영역이 아닌, 인간의 사회와 관계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기주의와 물질적인 이해타산과 싸워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고무하는 이러한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는 열쇠가 바로 ‘상상력’에 있다. 셸리에 의하면 ‘상상력’은 “도덕적인 선을 이루어내는 최대의 수단”인 것이다(“A Defence of Poetry” Vol. VII 145).

III. 결론

「몽블랑」과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에서 셸리가 정신과 사물의 관계를 탐색하는 이유는 그러한 탐색이 시인의 정체성 형성에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셸리에게 정신과 사물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정신과 사물의 구분

은 단지 형이상학적인 담론에서 필요한 하나의 가정일 뿐이다. 그러한 구분은 단지 개념에 대한 구분에 불과하다. 셸리에게 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그런 구분과 가정들을 통해, 그것들이 “삶의 안전과 행복에 변함없이 이바지하는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On Morals” Vol. VII 60)⁷. “거대한 힘”과 “미의 정령”에 대한 탐색도 당시의 주도적인 인식체계, 즉 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이다. 셸리는 기독교를 거대 권력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인간 존재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 사회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신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개혁, 더 나아가 정치적인 개혁을 꿈꾼다. 시인으로서 그는 혁명의 이상이 현실에 부딪혀 퇴색하고, 산업사회의 형성에 따른 폐해가 만연한 사회에서 시를 통해 인간성의 회복을 염원한다. 인간성의 회복이 이기심과 모든 독재가 사라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열쇠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성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시인의 역할로 설정한다. 「몽블랑」과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는 시인의 ‘상상력’이 ‘사랑’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담아내면서 시인의 역할에 대한 셸리의 숙고를 잘 그리고 있다. 그는 시 속에서 이상사회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시인이 되고자 하며, 그러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시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하고 숭고하고 장엄한 것들”이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A Defence of Poetry” Vol. VII 125). 시인은 “시대가 만

⁷ 많은 다른 사고들의 이동 동안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실제적인 대상들 혹은 외부대상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뚜렷한 생각들은 오직 몇몇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순환하는 생각들과 종류에 있어서 다르다. 그리고 보통 환상들, 꿈들, 그리고 미침에 대한 관념들과 같이 더욱 모호하고 희미한 생각들과 종류에 있어서 다르다. 이들 관념들 중의 어떤 하나 혹은 그것들 중의 어떤 종류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구별도 사물들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관찰에 근거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생각들이 삶의 안전과 행복에 변함없이 이바지하는가에 대한 고려 위에 근거한다.

It has commonly been supposed that those distinct thoughts which affect a number of persons,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e passage of a multitude of other thoughts, and which are called real, or external objects, are totally different in kind from those which affect only a few persons, and which recur at irregular intervals, and are usually more obscure and indistinct, such as hallucinations, dreams, and the ideas of madness. No essential distinction between any one of these ideas or any class of them is founded on a correct observation of the nature of things, but merely on a consideration of what thoughts are most invariably subservient to the security and happiness of life. (Vol. VII 59-60)

들어낸 사람”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만드는 사람”인 것이다. 그는 「몽블랑」과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에서 그 자신의 시대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시인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의 정체성에 다름 아니다. 셸리는 이 시들에서 ‘상상력’으로 그의 “시적인 계획과 인간 행동의 영원한 행위들 간의 고리를 발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Dawson 223).

인 용 문 헌

- Blank, G. Kim. *The New Shelley: Later Twentieth-Century Views*. Macmillan, 1991.
- Dawson, P. M. S. *The Unacknowledged Legislator: Shelley and Politics*. Oxford: Clarendon P, 1980.
- Eliot, T. S. *The Use of Poetry and the Use of Criticism: Studies in the Relation of Criticism to Poetry in England*. Cambridge, Mass.: Harvard UP, 1933.
- Ferber, Michael. *The Poetry of Shelley*. Penguin Books, 1993.
- Hall, Jean. *The Transforming Image: A Study of Shelley's Major Poetry*. London: Illinois UP, 1980.
- Hoagwood, Terrence Allan. *Prophecy and the Philosophy of Mind*. Alabama UP, 1985.
- Hume, David. *A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UP, 1978.
- Ingen, Roger and Peck, Walter Edwin, eds. *The Complete Works of Percy Bysshe Shelley, 10 vols*. New York: Gordian P, 1965.
- Leavis, F. R. *Revaluation: Tradition and Development in English Poetry*. London: Chatto & Windus, 1936.
- O’Neil, Michael. *Percy Bysshe Shelley: A Literary Life*. London: Macmillan P, 1989.
- Pulos, C. E.. *The Deep Truth*. Lincoln: Nebraska UP, 1962.
- Reiman, Donald H.. *Percy Bysshe Shelley*.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0.
- Wasserman, Earl R. *Shelley: A Critical Reading*.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 P, 1971.

이일재

주소: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ijlee20@daum.net

논문접수일: 2018. 06. 30 / 심사완료일: 2018. 07. 31 / 게재확정일: 2018. 08. 08